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19년 11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글로벌 철강사의 인수합병 동향

- 글로벌 철강사들은 신흥시장에서는 M&A를 통한 신규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반면, 성숙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도모
 - (중국) 정부주도로 국영기업간 M&A가 추진되고 있으며, 최근 바오우(宝武)그룹이 마안산(马鞍山)강철, 충칭(重庆)강철, 서우강(首钢)그룹의 지분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철강사인 ArcelorMittal와 박빙을 다투게 됨
 - (유럽) 철강경기 부진과 Tata스틸-Thyssenkrupp의 M&A 실패로 위기에 봉착한 유럽의 철강업계는 수익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
 - (일본) 설비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과감한 투자보다는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 추진
 - (미국) 지난해 232조 효과로 공격적 설비투자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철강사들이 투자보류나 가동중단 등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, 전통의 고로사 US Steel이 Big River Steel을 인수하면서 시장변화에 대처하고자 함

◆ 글로벌 철강사의 3분기 경영실적

- '18년 하반기부터 철강가격 하락이 지속된 반면,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철강사들의 경영실적 악화
-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진 유럽 시장의 수익이 가장 크게 악화된 가운데, AM과 Tata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침체시장의 생산은 줄이고 수익성 있는 시장에 집중
-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고로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철강사들의 원가부담이 커졌으며, 보호무역주의와 주요 소비시장의 수요둔화로 수출이 감소한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